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2025
APEC
INCHEON**
 국제 최대 경제포럼
세계 최대 비즈니스 허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미래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 1262 호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국방부 “국방부 앞 흥법도 흉상 이전 검토…백선엽상 검토 안해”



토론판 국방부 앞 기술 기관

브리핑하는 전하국 국방부 대변인

군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흥법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하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앞 흥법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전 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흥법도 장군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장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

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흥법도 장군 흉상을 빼고 국방부 청사 앞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울 것인가’는 질문에는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흥법도·김좌진·지청천·이병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희영 선생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육사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사가 역사학계나 교육부와 함께 동상 이전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만약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고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해군 잠수함 ‘흥법도함’ 명칭도 바꿀 계획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현재 해군은 흥법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 곽도훈 기자

LH본사 또 압수수색…‘수서 철근누락’ 수사 착수

경찰, 아파트 단지별로 연일 강제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량관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LH 조사 결과 드러난 부실공사 의혹의 법적 책임을 가릴 방침이다.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LH는 이같은 부실시공이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배당한 뒤 연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16일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25일에는 경남경찰청이 양산 사송단지 2곳과 관련해 LH 본사, 양산사업단 등 3곳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같은 날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으로 가장 많다.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 수사 중이다.

/ 신소정 기자

해병 前수사단장 첫 소환조사…진술 거부로 20여분만에 종료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이뤄졌으나 박 전 단장의 진술 거부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단장은 28일 예정보다 10분 이른 오후 1시 50분에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겠으나,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박 전 단장 측은 계획한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다.

이에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단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거부하고 퇴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보석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북경찰청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초동수사 자료를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에 돌려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사건기록을 실

물로 받고는 곧바로 복사해 사본을 갖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이례적인 행동인데, 국방부 장관의 부탁이라 해서 경찰이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자기 목을 내놓을 일을 했겠느냐”며 경찰에도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지난 25일 박 전 단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제포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 송진영 기자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건의 수용시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 포함 10월 3일까지 6일 연휴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정검다리 연휴 중 비유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 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

고위원회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

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

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박해운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민주, 워크숍 총집결해 “민생”…“정권 폭주 바로잡겠다” 다짐도

168명 중 166명 참석…“정기국회에 나라 명운 달려” 대여 투쟁 각오 모아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부강사 초빙, 총선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 워크숍에 총집결해 정기국회 및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워크숍에는 168명 중 일정 탓에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빼 166명이 참석, 98.8%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노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한번 신발 끈을 고쳐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준관 시인의 ‘기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의 일부 구절을 읊기도 했다.

그는 “떡갈나무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민주당이 외롭고 쓸쓸한 국민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정기

계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온 혁신 역량과 그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며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하고 국민께 보여드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준관 시인의 ‘기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의 일부 구절을 읊기도 했다.

이튿날인 29일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한다.

/ 송원기 기자

국회 활동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민생 채움’ 7대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입법과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 폭염 노동자 보호법 ▲ 혁신성장 지원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교육 보호법 ▲ 저신용자 신용 대출 확대 등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법 ▲ 영세 건설 사업장 개선법 등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민생채움 단’을 꾸려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추렸다.

또한 정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람 중심의 2024년 예산 제시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초 발표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전열도 가다듬었다.

이들은 이후 외부 초빙 강사의 여론 지형과 총선 전망 강연에 이어 한병도 전략 기획위원장의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벌이고, 상임위 별 분임 토의에도 나선다.

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는 자유나 독재나, 인권이나 반인권이나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북인협은 세계



2023. 8. 28.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출범식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은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출범…“민관 가교 역할”

김영호 장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하면 북도 변화 택할 것”

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규범에 기초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북한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 과제 중 하나”

라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행태를 날낱이 알리면서 한목소리로 인권 개선을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에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창립총회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대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등 창립 준비위원회 인사들과 김상국 통일부 인권정책관, 이재준 전 러시아 대사,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 김원석 기자

SAMSUNG

구형 TV 중고로 팔려야 새 TV로 바꾸자는 경제관념 확실한 우리 아내

상받을 만해



삼성 TV로 바꿔보상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최대 100만 포인트 보상 혜택부터 Neo QLED 189cm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만나보세요.
2023.06.01-07.31

Neo QLED 8K | Neo QLED | QLED | OLED



World EXPO 2030
BO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최대 100만 포인트는 삼성전자 행사 포인트로 지급. 행운의 기회와 함께 경품으로 당첨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 따라 혜택의 수령 가능 여부는 제한됩니다. 구입 모델은 89cm 이상 Neo QLED를 찾으세요!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 2006~2022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창당대회…“정치 기득권 깨부술 것”

최진석 상임대표·양향자 공동대표 체제…금태섭, 류호정 등 내빈으로 참석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공동대표(왼쪽)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서약에서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별목 잡고 있다”며 “한

국의희망은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주력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다.

최 상임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철학적 높이에서 포착한 대한민국의 한계

가 한국의희망에 의해서 돌파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인재를 배양하고, 부단히 혁신하는 일을 하면 선도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공동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깨부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정치세력의 엄청난 저항과 반동이 있을 것”이라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중앙당 지도부에서는 최 상임대표와 양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 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 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한국의희망 창당대회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도 내달 1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 송유영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

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당의 무공천 방침 확정시 김 전 구청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날 김 전 구청장이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지도부와 회동 계획에 대해서는 “저에게 뭔가 의논을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 원인 제공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취지는 해당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한다는 뜻)인데,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익신고로 정권이 교체됐다. 해당 행위가 아니라 당에 공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호성 기자

‘흉기소동’ 전직 요리사 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반성”



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직 요리사 정모(37)씨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

한 데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구속 수사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다른 사

구속심사 마친 뒤 “속상해서 그랬다” 오열

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정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 8개에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조율증 악물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묻자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당시 흉기로 자신

의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

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총격기) 등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2시간40분 만에 제압했다. 설득 과정에서 정씨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정씨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고 낚시에 쓰려고 차랑에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훈사자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와 가족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정씨는 4년 전 조율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악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일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임주환 기자



중국 휴어기 종료 앞두고 제주해경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중국 어선 휴어기 종료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조업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경비함정 해상특수기동대원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해경은 다음 달 15일부로 중국 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끝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 침범과 무력 저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검문검색·단속 절차, 나포 시 유의사항, 진압장비·무기 등 각종 장비 활용

/ 남희준 기자

“내년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지난달 열린 지역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지역구 의원의 총선 지지를 호소한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를 받게 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천 시장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 제보자가 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도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제보자가 활동한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은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시민대동제’ 행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천 시장은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 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주막을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제보가 접수된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시장의 관권 선거 개입에 따른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

/ 최병훈 기자

검찰,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 징역 1년 구형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트 유통 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 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

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시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 업자 B(54)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8년에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 오창민 기자

‘1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영장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

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시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 수익은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 황경호 기자

우리를 지켜준 당신
우리가 지켜갈 당신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에 발맞춰 더 나은 보훈의료복지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당신의 건강한 오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삼성, '외국인 경력 채용' 첫 도입…R&D 분야 글로벌 인재 확보

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 다음달 8일까지 지원서 접수

삼성이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3사는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은 그동안 전 세계의 R&D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리쿠르팅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를 위해 새롭게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 전형'을 도입했다. 해외 현지에서 근무할 인재를 뽑는 것과 별개로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 경력사원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외국인 인력은 각 계열사의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임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내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석·박사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수학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지원 희망자는 삼성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삼성은 9월 서류전형, 10월 면접, 11월 건강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이 좋아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이 한국에 남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승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인력의 취업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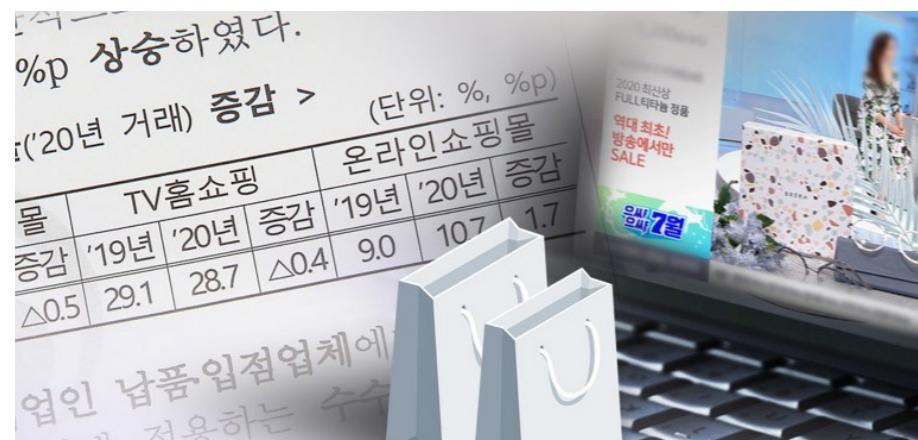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은 현재 내국인 R&D 인력을 대상으로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은 다음 달 초에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정기 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신입 채용 절차는 직무적합성검사와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등을 거쳐 진행되며 예년처럼 상·하반기 합쳐 1만명 이상을 채용할 전망이다.

/ 권정석 기자

홈쇼핑 수수료 갈등 극한으로…CJ온스타일도 송출 중단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28일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서울(양천구·은평구)과 경기(부천·김포·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강원, 충남, 경북 등 23개 지역에서 LG헬로비전에 가입한 시청자들

은 CJ온스타일을 볼 수 없게 된다.

CJ온스타일은 송출 수수료 기본 협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 종료 의사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도 송출 수수료 갈등 끝에 일부 사업자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는 오랜 기간 송출 수수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해왔다. 특히 최근 홈쇼핑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결국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천65억원으로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달했다. 반면 홈쇼핑 업계의 업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1천557억원에서 매년 200억원씩 줄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58.4%나 급감한 259억원에 그쳤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방송법 위반에 따른 새벽방송 중단 영향까지 겹치며 2분기 영업이익이 20억원으로 92.8%나 급감했다. CJ온스타일도 연간 영업이익이 2020년 1천798억원에서 지난해 878억원까지 떨어졌다.

CJ온스타일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 수수료가 3천691억으로 방송 사업 매출의 74.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오은주 기자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이 지방분해 도움?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15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 15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수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는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용도인 화장품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광고 322건을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155건 가운데 147건(94.84%)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 민희준 기자

나머지 8건(5.16%)은 '(가슴)지방세포 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혼죽하는 부당광고이므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민간광고검증단'도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 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등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희준 기자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공영방송, 특혜 당연시하면서 노영방송…특정진영 정파적이해 대변 바로잡아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 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절차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심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가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를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날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주요 과장·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취임 첫날부터 내부 인적 개편에 착수했다.

/ 강현주 기자

이동관
세상에
이동관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화학 가족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전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확대 검토…대상 70세 상향 추진

최대 30만원 차등 지급 협의 예정…고령자 면허반납률 9% 불과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1만47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1만1천56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만원인 반납 혜택을 최대 3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허를 소지만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 지금처럼 10만원을 지급하되, 반납 할 당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3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면 필요한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혜택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65세 이상인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면허를 반납한 3천504명 중 65~69세는 5.9%인 207명뿐이었다.

나머지 94.1%인 3천297명이 70세 이상이었지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2



만7천57명) 가운데는 12.2%만 면허를 반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0세 미만은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해 면허를 반

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는 70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구 협력회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인천·광주·세종시가 운전면허 반납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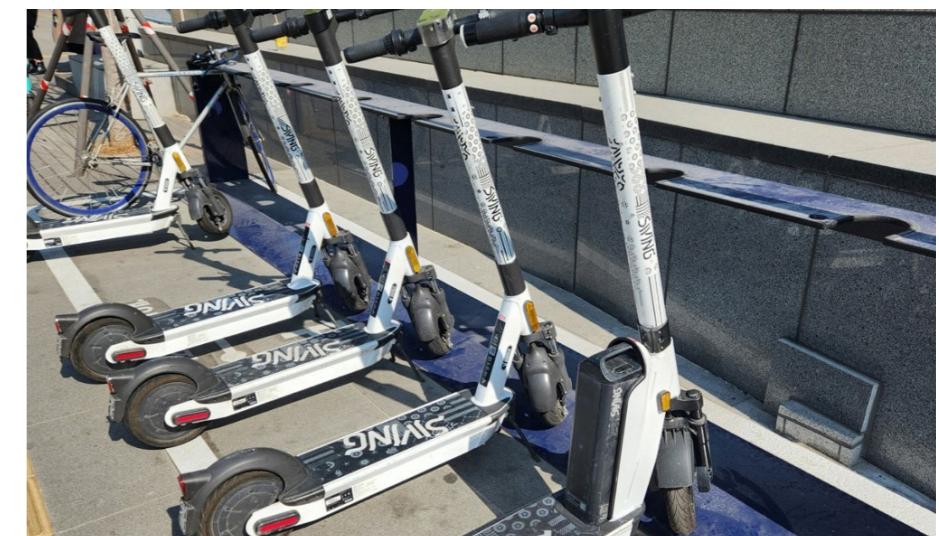
대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고는 2018년 865건에서 지난해 1천75건으로 5년 사이 24.3% 증가했다.

이 기간 총 5천130건의 고령 운전자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7천363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7천487건에서 지난해 6천768건으로 9.6% 감소했다. 사망자는 85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정은 기자



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km이하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도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

계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이 필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 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 민자환 기자

원주시청노조, 박정하 의원과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 지정 면 육계대교 인근에서 환경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30여명이 활동에 나섰다. 가시박은 토양에 다른 식물이 자라날 수 없도록 타감물질을 뿐이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유해 식물이다. 옥수수, 콩 등 작물 수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갑)도 처음부터 조합원들과 함께 가

시박 제거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행소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까지 참

여한 공무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좋은 시

간이 됐다”며 “가시박 제거 예산 현실화

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 도움을 주

겠다”고 말했다.

우해승 노조위원장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 문제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노은 기자

주한미군, 연천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해 평상 만들어 전달



주한미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들어 전달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평상을 만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94군사경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찰대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

“관광 활성화” VS “교육환경 위협” 세종시 숙박시설 허용 논란

나성동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 제시해야”

세종시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인 어진동·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의 주거·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특히 주거지역과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성동 면 자골목이 숙박시설 입점 제1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나성동 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천662명(3천200가구)의 숙박시설 반대 서명운동 결과도 이날 제시했다.

비대위는 “세종시청이 있는 보람동의 경우 2021년 숙박시설 반대 운동에 5천500여명이 서명했고, 시는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숙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단지 전경

반영해 숙박업 허용 추진을 철회했다”며 “보람동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성동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숙박시설 허용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연 비대위 대표는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시설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 시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숙

박시설 설치 후보지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성·어진동 일대의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 상권 활성화 등 세종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한호석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9월부터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다음 달부터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이름을 바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안전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친 황희찬·조규성 클린스만호 선발…허벅지 부상 이강인 제외

월 A매치 웨일스·사우디전 나설 대표팀 명단 발표…이순민 첫 태극마크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다친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조규성(미트윌란), 오현규(셀틱)를 불러들여 9월 A매치에서 첫 승리에 도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유럽 원정 A매치를 앞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뽑은 국가대표 선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클린스만호는 다음 달 두 경기를 유럽 원정으로 치르는데, 8일 오전 3시 45분 (이하 한국시간)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웨일스를, 13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상대한다.

유럽에서 뛰는 대표팀 주축 공격수들이 줄부상을 입은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중 허벅지 근육을 다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대부분 선수를 소집 명단에 올렸다.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다친 조규성(미트윌란)과 종아리에 부상을 입은 오현규(셀틱), 고질인 핸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이 재발한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모두 불러들여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노팅



황희찬 드리블

엄) 등과 함께 대표팀 공격을 맡기기로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의 부상으로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 곤란이 예상된다”면서 “이강인이 조속히 회복돼 소속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정상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행히 조규성과 황희찬의 경우 소속팀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번 소집 합류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대표팀 관계자도 “황희찬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이번 주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거로 확인했다. 오현규와 조규성도 A매치 기간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해서 명단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 현대), 골키퍼 송범근(쇼난 벨마레) 역시 부상으로 낙마한 가운데 김준홍(김천 상무)과 김지수

(브렌트퍼드), 이순민(광주FC)은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골키퍼 김준홍과 중앙 수비수 김지수는 지난 6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김은중호의 4강 진출 주역으로 활약했다. 이순민은 올해 K리그에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의 핵심 미드필더로, 29살에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동경(울산 현대)과 강상우(베이징 쿠안)는 지난해 1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동 원정 이후 1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또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두차례 평가전에 소집됐으나 경기는 뛰지 못했던 양현준(셀틱)도 발탁돼 A매치에 데뷔할 기회를 잡았다.

린스만 감독은 소집 기간이 겹친다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양보’했다. 이에 따라 백승호와 송민규(이상 전북 현대),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박규현(드레스덴)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창원 훈련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최준용 기자



‘도민 화합의 축제’ 전북도민체전

9월 1일 김제서 팡파르

전북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9월 1일부터 사흘간 김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8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도민체전은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를 슬로건으로 14개 시·군 선수와 임원, 관중 등 2만5천여명이 참가해 39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본 대회에 앞서 민속경기와 소프트테니스, 유파, 줄다리기 등을 사전경기로 치

른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7시 김제시 민운동장에서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폐회식은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모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면서 “체육으로 하나가 되는 전라북도를 만들도록 대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챙기겠다”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롯데 서튼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이종운 대행 체제



2019년 10월 롯데 2군 감독으로 부임해 KBO리그와 다시 인연을 이어갔다.

퓨처스(2군) 리그에서 선수를 육성해오던 서튼 전 감독은 2021년 5월 허문희 전 롯데 감독이 경질된 것과 동시에 1군 감독으로 부임했다.

감독 지휘봉을 잡은 첫해에는 하위권에 있던 롯데를 가을야구 경쟁권으로 끌어 올리며 자신이 감독으로 올라선 뒤에는 53승 53패 8무, 승률 55%로 마치 기대감을 키웠다.

롯데 구단은 2021년 시즌이 끝난 뒤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해 서튼 전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다.

많은 전문가는 전력이 허약한 롯데가 2022년에도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고, 서튼 전 감독은 큰 반전을 만들 어내지 못한 채 64승 76패 4무(승률 0.457), 8위로 시즌을 마쳤다.

계약 마지막 해인 올 시즌만큼은 시즌 초반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 박소희 기자

김수현·박혜정 등 19명, 세계역도선수권 출전…북한 불참



호 남자 81kg급 김우재가 합계 3위에 올랐다. 이 중 김수현이 리야드 세계선수권에 출전해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여자 최종량급 박혜정(고양시청)과 손영희(부산광역시체육회)도 이 체급 최강 리원원(중국)에 이어 ‘2위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남자 102kg급 진윤성(고양시청)과 장연학(아산시청)도 메달권으로 평가받는다. 리야드 세계선수권은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꼭 출전해야 하는 ‘의무 참가 대회’다. 파리 올림픽 랭킹 포인트도 걸렸다.

북한 역도는 2021년, 2022년에 이어 이번 세계선수권에도 출전하지 않는다.

/ 임해성 기자

‘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두번째 구속심사



프로축구 구단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가 28일 두번째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지난 7일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1일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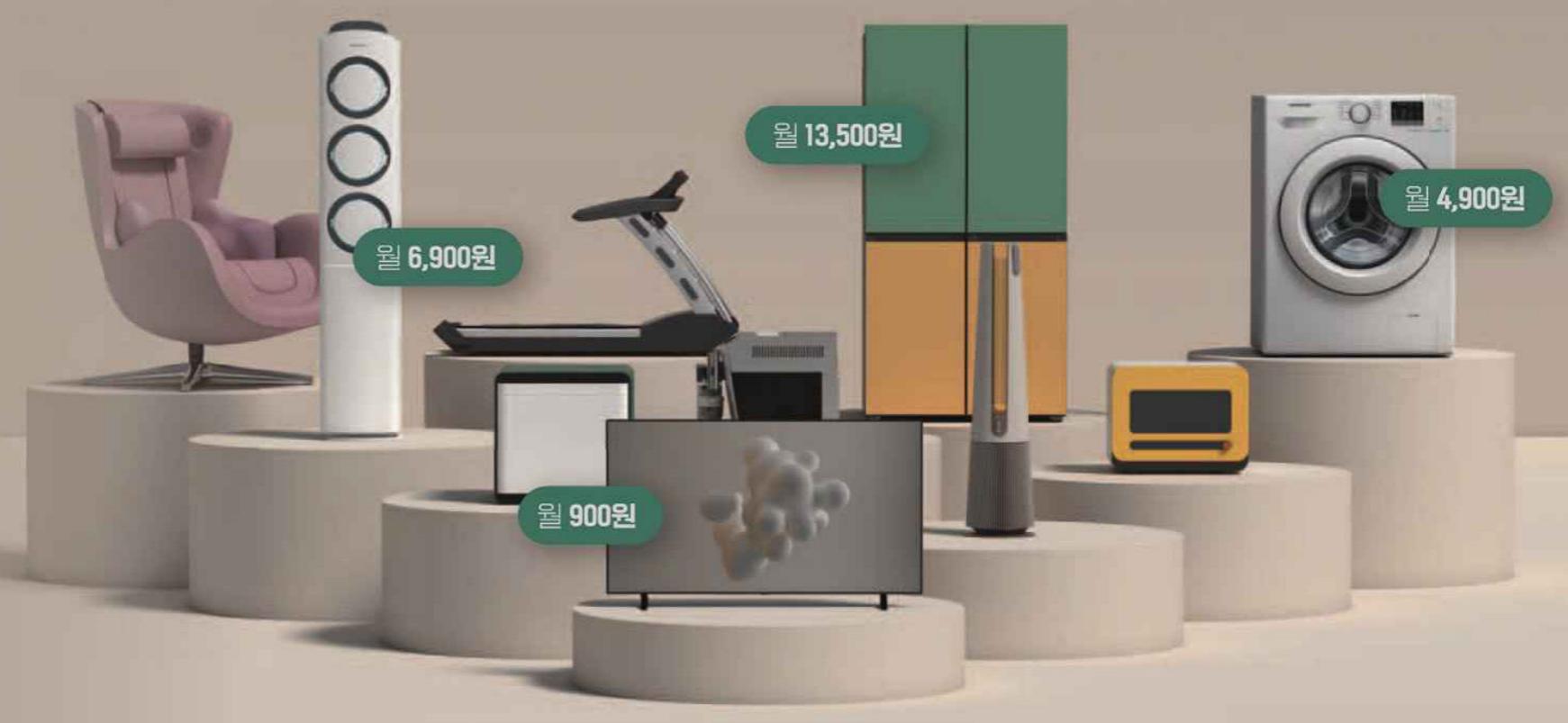
오전 10시 11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수 입단 대가로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구속기소)씨에게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천700만원을 쟁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현(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흥모씨에게 시가 6천15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박민숙 기자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뉴진스 “고민하고 노력 들인 앨범…성과 이뤄 뿐듯하고 행복”

두 번째 미니음반 활동 마무리…빌보드 앨범 1위·해외 음악 축제 무대

그룹 뉴진스가 큰 성공을 거둔 두 번째 미니음반 '겟 업'(Get Up) 활동에 대해 “예상보다 더 이르게 많은 성과를 이루고 사랑받을 수 있어서 정말 뿐듯하고 행복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이번 앨범은 뉴진스 단체로도 멤버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들인 앨범”이라며 애정을 드러낸 뒤 활동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뉴진스는 '겟 업'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앤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또 ‘슈퍼 사이’(Super Shy), ‘ETA’, ‘쿨 위드 유’(Cool With You) 세 타이틀곡을 한꺼번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시켰다.

어도어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세 곡을 동시에 진입시킨 K팝 걸그룹은 뉴진스가 최초”라고 소개했다.



걸그룹 뉴진스

‘슈퍼 사이’는 ‘핫 100’에서 최고 순위 48위를 기록했고 6주 연속 머무르고 있다. ‘겟 업’은 ‘빌보드 200’에 4주 연속 진입 중이다. ‘슈퍼 사이’는 이 밖에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7주 연속 진입해 주류 팝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번 앨범은 멜론 등 국내 음원 차트 정상을 훔쳤었고, 실물 음반은 발매 첫 주에만 165만장이 팔려나갔다.

뉴진스는 특히 이달 3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와 일본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서머소닉’에 올라 현지 관객을 열광시켰다. ‘슈퍼 사이’ 유튜브 쇼츠 영상은 한국, 미국, 인도, 영국 등지에서 67만개, 틱톡에서는 관련 영상 94만개가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인 철린지 열풍도 일었다.

어도어는 “뉴진스는 기존 K팝 형식에서 벗어나 친근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며 “트리플 타이틀곡에 수록곡 전곡 뮤직비디오 제작이라는 과감한 전략도 통했다”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아울러 파워퍼프걸·애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브랜드과 손잡은 것은 협업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곡으로 음악 축제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며 “항상 함께해주는 버니즈(뉴진스 팬),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 이은정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유인촌 문체특보, 연예 단체 3곳 만나 피프티 사태 논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문체특보)이 국내 주요 연예 단체를 만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축발된 연예계 탐파링(전속계약

연예기획사 전속 표준계약서 수정, 연예 계 FA(Free Agent·자유 계약) 제도 도입, 탐파링 시도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예계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뿐 아니라 탐파링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현안과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성 기자

다이나믹 듀오, 오늘 10집 파트 2 발표



다이나믹 듀오 개코(좌)와 최자(우)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는 28일 정규 10집의 두 번째 파트 ‘투 키즈 온 더 블럭 파트 투’(2 Kids On The Block - Part.2)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아메바컬쳐가 밝혔다.

아메바컬쳐는 “투 키즈 온 더 블럭”은 다이나믹 듀오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펼쳐낸 한 장의 이력서 같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눈물 점’과 곡명이 눈길을 끄는 ‘정우성이정재’, 지난해 선공개된 ‘시간아 멈춰라’까지 총 세 곡이 담겼다.

다이나믹듀오는 이번 앨범으로 개코와 최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의 삶, 사랑, 사색을 풀어냈다. 진솔한 가사가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정우성이정재’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괴식대학’ 크루들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노래다. 배우 이병헌이 전작 인트로 내레이션을 맡은 데 이어 의외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이나믹 듀오는 올해 10집과 함께 2014년에 발표한 ‘AEAO’가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순위 역주행을 이뤄내며 큰 관심을 받았다.

/ 백건우 기자

임형주, 내달 세종문화회관서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다음 달 16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제 데뷔 20주년 및 국내 데뷔 25주년

을 기념하는 단독 콘서트 ‘킹 오브 팝페라’(King Of Popera·팝페라의 제왕)를 연

다고 소속사 디지엔콤이 28일 밝혔다.

임형주는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이 창단하고 음악감독으로 몸담은 ‘코리안 내

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리스 그룹 ‘뉴 워즈덤 하모니’ 등 총 50인조 연주단·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하월가’, ‘부디’(SBS 드라마 ‘왕과나 OST) 등 히트곡은 물론 클래식, 팝, 재즈를 아우르는 노래를 들려준다.

/ 황지성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한수원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ENERGY UP!

[자영업자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힘들지만 보람 있으니까 랜찮아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한수원의 무한 에너지로 힘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 앞에 작아지지 않을 힘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 청년의 힘도 강해질 테니까

|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

우리 청년에게 우리의 힘을

기대출 제한 없고, 금리까지 부담 없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우리 청년에게 힘이 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

확정금리 연 5%
(최초 1년간)기대출 한도 차감 없이 최대 500만원 대출 가능
(CB등급에 따라 차등)중도상환수수료 Zero
우리 WON뱅킹 통한 무방문 / 무서류 대출우리 WON뱅킹으로
바로 가입하기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 II)」 대상은 만 34세 이하 &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 소득자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내부 신사 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5백만 원 대출금리는 연 5.0%입니다. 상품 기입 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우리은행 내부 산출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및 최종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 소득·담보·병력·보유 중인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어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체 이율은 적용 금리 + 연 3%(마다 연체 1회은 연 12%)이며 중도상환해제금은 반제됩니다. 민기일시상환방식으로 아는 바 17개월 단위로 후취 납부이며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입니다. 단,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의 대상입니다. 대출 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개인신용평점, 재직 연 소득, 대출 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등)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상단의 대출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재 연체 제한으로 상품의 내용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참조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일 2023.08.11~2024.12.31